

시극을 구하는 창작성노트

내 주제는 "사실주의적 접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학적 실험 방법 해설"이다
주 내용은 근대화(90) 이후 실험적 경향에 따른 갈등에 대한 단상설
하는 것인데, 단상설에 해설이 가능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로서 디스칼라지만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 19 유진

Yu-Jin *

코로나 19로 인해 신학 경차에 따른 갈등 해소

참고문헌 구성 순서 !!

유일 기원적인 자료 수집 (인터넷 뉴스 기사 + 다양한 사례)

(이제 제일 목적이었는데... 자료 수집은 사기 저하 때문에

신학 경차나 생협에 대한 기사는 좀 적을거 같다. ㅠ.. ㅠ..

생협에 대한 기사나 관련된 좀 보고 싶었는데 ㅠ ㅠ..

이제인데 ~~생협~~ 생협인들은 상상하지 못한 만큼의 사상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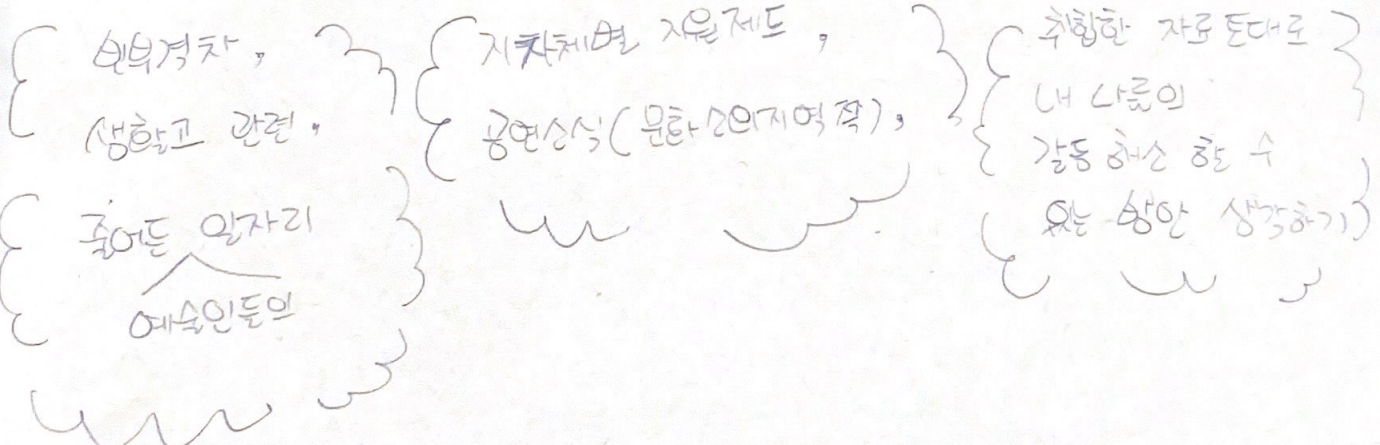
사상 차이 있고 전혀 미안했다, 해로로 몇백명대이

집을 샀다는 기사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격차는 것 같다.

(이것은 나의 주관적인 생각도 포함되었던 해가지만

인터넷 기사 댓글 인터넷을 하러 있는 사람은 다들 비슷한 생각들 있듯)

* 자료수집 * * 수집한 자료 토대로 취합 * * 정리도출 *



가난은 이자가 붙는다..

Being poor now just leads to being more poor later.
Can't pay to clean your teeth? Next year, pay for a root canal. Can't pay for a new mattress? Next year, pay for back surgery. Can't pay to get that lump checked out? Next year, pay for stage 3 cancer. Poverty charges interest.

지금 가난하다는 것은 나중에 더 가난해진다.는 것 의미한다.

지금 양장 치약 칫솔을 살 돈이 없는가? ~~그~~ 그런 내년에는 잇몸관절 비용을 청구 받을 것이다.

지금 당장 새 매트리스를 살 돈이 없는가? 그런 내년에는 척추 수술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그 흉물 검사 받을 비용이 없는가? 그런 내년에는 3기 암 치료비를 내게 될 것이다.

가난에는 이자가 붙는다..

- Tay Zonday 트윗 중.. -

유투브에서 'Chocolate Rain'이라는 노래로 큰 인기를 끌었던 척 테이 존데이의 트윗 내용이다.

Poverty Charges interest '가난에는 이자가 붙는다.'

환상적인 양극화의 구현..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았을 때 평균 수명도 길고, 혹시나 생길 질병에 대한 치료비도, 노후대비도 가능할 것인데.. 소득 수준이 낮은 사회층들은 노후대비는 꿈도 못하고 당장 살아갈 생계 걱정부터 해야되는 상황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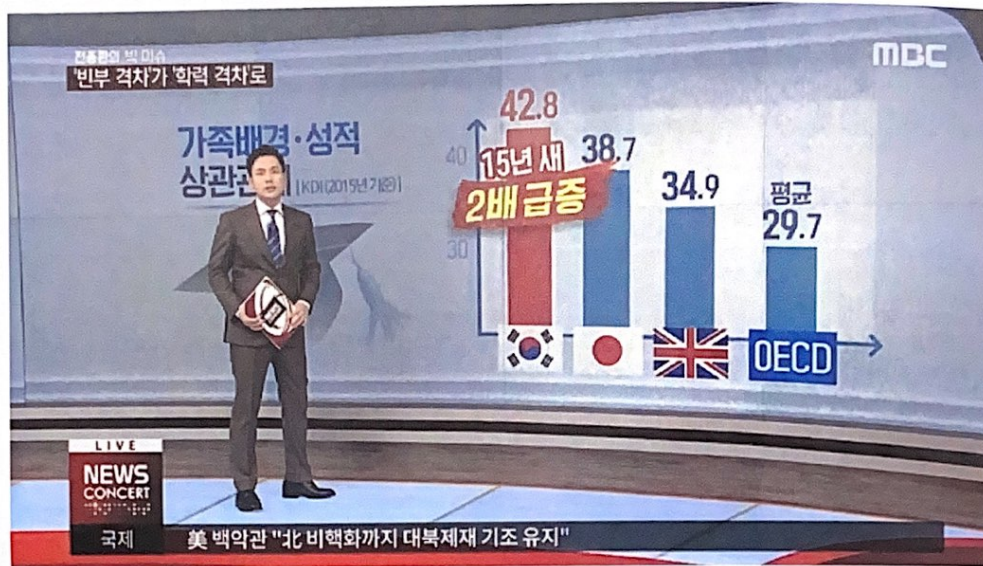
지방에서 태어나 음악 공부를 한 나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다보면 내생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번 술잔정이 있다.

생활에 대한 취미도 있지만 문화적 요소를 접할 기회가 훨씬 많고 좀 더 알짜 경험을 한 친구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브닝뉴스  전종환 앵커

[전종환의 빅 이슈] '학력'도 소득에 따라 '빈부격차'

입력 2018-06-05 17:37 | 수정 2018-06-05 17:49



앵커

전종환의 빅 이슈입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

흔히 들던 말이죠.

그런데요, 이제 현실에서 힘을 잃어가는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사는 가정일수록 자녀 교육비가 치솟고 있다.) 이 같은 통계가 오늘(5일) 발표됐는데요.

먼저, 관련 보도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상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학원 교육비는 24만 2천 원입니다.

8천9백 원인 소득 1분위 가구와 비교해 무려 27배 차이가 납니다.

두 계층 사이의 소비 규모가 3.8배에 불과한 걸 감안하면, 교육비 격차는 7배 가까이 벌어진 셈입니다.

학교 단계별로 보면, 두 계층 사이 월평균 초등교육비는 44배, 중등교육비는 13배, 고등교육비는 3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앵커

좀 더 자세히 보죠.

물론, 실제로 지출하시는 사교육비는 이보다 훨씬 많다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나온 자료를 토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학원비, 24만 2천 원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소득 하위 20% 가구의 교육비, 8천9백 원에 그쳤고요.

그 차이, 무려 27배입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 교육비만 보면요.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초등교육비, 1만 6천 원인데요.

소득 하위 20% 가구는 369원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44배 차이가 난 겁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왜 이리 많이 차이가 났을까?

소득이 많은 가구의 자녀들, 일단 사립초등학교에 입학시켜 학비가 크게 올랐을 거고요, 사립초등학교에 입학 못 했다면 또 그대로 사교육비 지출 경쟁하느라 많이 썼을 거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학교에 들어서면서부터 '배움'의 대물림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씬씨의 차이는, 대학 입학 할 때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고액 과외, 고액 대입 컨설팅은 고소득층의 전유물이 된 지 무척 오래됐습니다.

관련 보도 보시겠습니다.

(= 배움 대물림이라 문헌체현의 부족, 결핍은 빈부 격차에서 시장됨을 알 수 있다)

영상

[2018년 3월 26일 뉴스데스크 정준희]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법을 알려준다는 서울 강남의 한 컨설팅 업체.

평범한 고교생의 학생부를 성실히 진로 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탈바꿈시켜 학종으로 간호학과에 진학 시켰다는 '성공담'을 자랑합니다.

[컨설팅업체 강사]

"학급에서 '건강부장'이란 직책을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그거 네가 해라'라고 해서 학생이 그것을 (건강부장을) 했죠. ('건강부장'이란 직책은) 그 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학생은 실제 올해 서울 소재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학생부 관리는 물론,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 이른바 학종 컨설팅으로 업체들이 받는 돈은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까지.

이렇다 보니 있는 집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금수저 전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

이렇다 보니, 부모 경제력에 따른 입시 결과의 격차도 확인한데요, 자,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 보시죠.

(가족의 재원) 부모의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42.8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열이 높다는 일본도 38.7, 영국은 34.9에 해당했구요.

OECD 평균 29.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심각하다는 얘기죠.

더 문제는, 지난 15년 사이 이 수치가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빈부의 격차가 빠른 속도로 '자녀 학력 격차'로 번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 볼 수 있을 겁니다.

(빈부의 격차가 커진다는 것은 우스갯소리가 정말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실제 어느 정도인지 리포트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상

[2012년 11월 6일 NT 노경진]

서울의 한 명문대학.

1학년 학생들의 출신지를 물어보니 두 명 중 한 명꼴로 서울이라고 답합니다.

[오유빈]

"서울 출신이요, 한영외고 졸업했고..."

서울, 경기지역에선 고등학교 졸업생 1만 명 중 134.5명이 서울대에 입학했지만 나머지 지역은 80명에 불과했습니다.

입학률의 차이는 서울 지역 안에서도 나타나 강남구 173명, 서초구는 150명인데 비해 금천, 구로구는 각각 18명뿐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교육비.



[김영철/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경제력 격차가 확대된 것. 입시 사교육 전문 업체들이 수도권지역에 밀집돼 있으면서 사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 학생들이 보다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 것..."

* 각 지자체 문화관련 재단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 제공을 하고 있지만
앵커 상대적으로 수다 적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수 없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연구 결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연구진이 서울대와 연고대생 15명을 각각 1시간 가량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 학벌과 관련된 생각을 담은 문장을 1백 개 뽑아냈고요, 실제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기게 해서 명문대 학생들의 학벌에 대한 생각을 알아봤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학벌을 바탕으로 한 '계층 상승 욕구'가 가장 큰 점수를 받았고요.

('가족 배경의 대물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든든한 가족의 배경이 좋은 학벌 획득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경제력 격차가 좋은 학벌 취득은
불문이고, 공연·전시 등 문화활동은
점한 기회까지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연구진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결국은 공교육이 바로 세워져야겠죠, 그래서 경제력에 따라 학력을 서열화하는 부작용만큼은 최소화
했으면 하는 바람,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빅이슈였습니다.

네(연예 뉴스 스포츠

한눈에
잡는다


홈

랭킹뉴스

아이돌

연예

AVEDA



인바티 어드밴스드™
더 건강하고 풍성해 보이는 모발 볼륨

[HI★초점] 연예인 돈 자랑, 진짜 문제는

한국일보 2021.05.10 20:13

1,789

공유



"돈 자랑은 사적인 술자리에서나 했으면 좋겠어요."

SNS와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 스타들의 재력 과시가 이어지고 있다. 드라마 속이나 등장할 법한 으리으리한 집부터 값비싼 외제차, 명품, 돈다발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그야말로 '그사세(그들이 사는 세상)'다.

관련한 SNS 속 게시물에는 '좋아요'와 댓글이 수없이 많이 달리고, 방송 후에는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올라온다. 이를 향한 대중의 시선이 늘 따뜻한 것은 아니다.

스타들의 돈 자랑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한다. 럭셔리한 집과 물건이 한두 번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이와 관련된 콘텐츠들을 수없이 접하게 되면서 자신과 연예인을 비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자신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돈 자랑을 하는 걸 보면 화가 난다"는 글을 남겼다.

물론 반대 의견도 많다. 힘들게 번 돈을 자랑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라는 게 지배적이다. SNS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일부 네티즌은 스타들이 올린 부(富) 과시 콘텐츠를 통해 대리 만족의 기쁨까지 얻는다고 말한다.



문제는 프로그램의 취지와 큰 연관성이 없는 재력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방송이다. 주요 포털 사이트들을 통해 공개되는 소개글에 따르면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은 '연예계 소문난 맛.잘.알(맛을 잘 아는) 스타들이 혼자 먹기에 가까운 필살의 메뉴를 공개, 이 중 메뉴 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승리한 메뉴가 방송 다음 날 실제로 전국의 편의점에서 출시되는 신개념 편의점 신상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그럼에도 '신상출시 편스토랑'은 새로운 편셰프들이 등장하면 '필살의 메뉴' 혹은 '편의점'과는 관련 없는 집을 보여준다. 한다감은 랜선 집들이를 통해 한

옥 친정집을 소개했고, 그의 아버지는 "대문이 집 한 채 값"이라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 외에도 박정아 전해빈 등의 수많은 편세프들이 집을 공개했다. 럭셔리한 집을 본 출연진은 "뷰가 최고다" "집이 진짜 좋다" 등의 감탄사를 연발했다.

SBS '집사부일체'도 비슷했다. '집사부일체'의 소개글에는 '물음표 가득한 청춘들과 마이웨이 괴짜 사부들의 동거동락 인생 과외'라고 쓰여 있다. '인생 과외'가 초점이지만, 때때로 럭셔리한 집들과 그 집을 보며 감탄하는 출연진의 모습이 화면을 채웠다. 럭셔리한 집이 사부의 과외와 연관돼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집사부일체'에 스타의 으리으리한 집이 나오면 기사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한 번 더 부각된다. 이에 한 네티즌은 "프로그램이 산으로 가는 듯하다"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비슷한 이유로 많은 네티즌들이 예능 프로그램들을 향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SNS에서는 스타의 게시물이 보기 싫다면 그의 계정을 팔로우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방송은 다르다. 내용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는 콘텐츠만을 보고 싶어 하는 이들도 스타들의 재력 자랑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사랑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롱런을 바란다면 대중의 의견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모두가 힘든 시기, 재력 과시 콘텐츠를 향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방송가의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정한별 기자 onestar101@hankookilbo.com

- 연예인들도 그들의 능력으로 돈을 벌고, 독자 능력으로 재물을 축적한 것이다.
- 하지만 비디어를 통해 여러없이 자랑 컨텐츠 위주로 소중치는 사람에
관련기사 생애지 상당한 물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장래희망이
- 늘 밝은 차태현이 숨기고 있던 '아픔' 유독비, 현예인, 유명인으로도
- '센터는 슈가'...방탄소년단, 'Butter' 완전체 비주얼 국한되는 현실이
- '실핏줄까지 연기한다'는 신하균, 항상 불안한 이유가... 연타깝다..
- 컴백 앞둔 에버글로우, 확 바뀐 비주얼
- 박세리, 코로나19 완치 '재충전 시간 갖고 있다'

인쇄하기



인쇄

HOME > 사회 > 사건/사고

강서구 일가족 사망사건..생활고 비관한 남편 범행 결론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11.02 17:24

가족 체내 졸피뎀 검출..남편 졸피뎀 구입사실 확인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지난달 7일 발생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다세대주택 일가족 사망사건은 생활고를 비난한 남편이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가장 이모(58)씨가 아내 김모(49)씨, 고등학생 딸(16)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가족은 기초수급대상자로, 내발산동 다세대주택 임대료도 SH공사로부터 '긴급주거비'를 지원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남편과 부인, 그리고 딸의 체내에서 수면제인 졸피뎀이 검출됐다"며 아내와 딸은 졸피뎀을 먹고 수면상태에서 질식사 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 이씨는 9월17일과 지난달 2일 강서구의 한 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졸피뎀을 구입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사건 당일 범행 직전 아내와 대화한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

이 대화에는 "음료수에 수면제를 탔으니 이걸 먹으면 편안하게 죽여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음료수를 먹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은 남편 이씨가 사망한 탓에 조만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강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호 기자 기자

☞ 인쇄

• 신문사의 근친살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 기존 수검대상자였던 가족이 딸과 아내를 살해하고
불인도 자살한 기사이다.

긴급 조처비를 지원받을 정도로 생후20여 시달렸던 가정은
더 이상의 삶과 희망이 없다는 감전감에 가족들을
살인한 비극적인 내용이다.

예전처럼 '개천에서 용 난다, 라는 속담은

정말 옛날이야기 도버린 현실이다..

뉴스

AI 뉴스룸

우리모두뉴스

많이본뉴스

"하나 된 하모니" 해원학교, 하트체임버오케스트라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2021-06-04 09:36:56

가+ 가-

- "눈을 감고 마음으로 들어요, 음악감상 그 이상의 감동이 보여요"



▲체임버 오케스트라가 해원학교에서 '슈베르트의 세레나데'를 연주하고 있다. © 백설아

[프라임경제] 오케스트라 공연장에서 갑자기 정전이 되어 앞이 깜깜해진다면? 공연은 아마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의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오케스트라는 많은 악기의 연주자들이 하나의 곡을 함께 맞추어 연주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악보와 지휘자이다. 그러나 이들의 무대에는 악보도 지휘자도 보이지 않는다.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감동적인 무대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 3일 오후 해원학교(화성시 장안면)에서는 2021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가 주최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뉴 비전 콘서트'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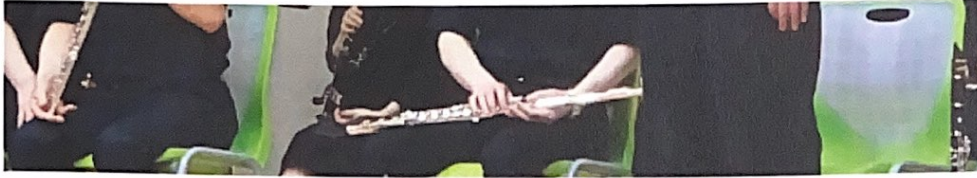
신록을 적시는 빗소리에 어울리는 '슈베르트의 세레나데'로 막을 연 공연은 학생들이 자주 접해 익숙한 영화음악, 애니메이션 주제곡으로 이어지며 1시간 여 연주됐다.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시각장애 음악인으로 구성된 세계 유일의 민간 실내관

현악단으로 현재 나사렛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클라리네티스트 이상재 음악감독이 이끌고 있다. 또한 13명의 시각장애단원과 10명의 비장애단원이 함께하여 '기적의 음악', '환상의 하모니'로 극찬 받고 있으며, 전국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활동을 통해 장애인식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학생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한 교사 A씨는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화음을 맞추는 소리의 하모니를 넘어, 장애·비장애 단원들이 서로 돕고 배려하며 하나 된 하모니는 우리에게 음악 감상, 그 이상의 감동을 주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주회 한 참석자는 "장애·비장애 단원들이 서로 돕고 배려하며 하나 된 하모니는 우리에게 음악 감상, 그 이상의 감동을 주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백설아

실로 많은 단원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좁은 무대에서 활을 긋고, 큰 악기를 움직이면서도 악기 부딪히는 소리 한번 나지 않는 것을 보며 우리 사회가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해 주는 공연이었다.

평소 발달장애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 확대를 강조하는 해원학교 장영실 교장은 **"이 공연이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현장체험학습 등 문화교육활동의 기회가 없었던 학생들에게 문화감수성이 충전되는 힐링이 시간이 되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소리를 맞추려면 마음을 맞추는 것이 먼저'임을 보여준 하트체임버오케스트라 디렉터의 마지막 멘트가 큰 여운으로 우리 모두에게 남았다.

포항시민간스포츠문화재단, '찾아가는 희망 음악회' 울릉도서 개최

✎ 강동진 기자 | ⓒ 승인 2021.06.13 16:23

| -주민·관광객들 반응 너무 좋아... 내년에도 울릉도에서 열 예정



포항시민간스포츠문화재단의 울릉도서 '찾아가는 희망 음악회' 공연 모습 (사진 = 포항시민간스포츠문화재단)

(포항=국제뉴스) 강동진 기자 = 최근 포항시민간스포츠문화재단이 울릉도에서 '찾아가는 희망 음악회'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포항시민간스포츠문화재단(대표 정석목) 회원들은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아 지난 달 22일 신비의 섬 울릉도 저동 관해정에서 울릉도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동녘아침 새희망 외쳐 불러라'라는 주제로 제4회 '2021 찾아가는 희망 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음악회는 이석화 추진위원장의 마술로 시작됐으며, 성악가 이우성 성악가가 가곡 '그리운 금강산'을 열창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수준급 회원들의 색소폰 연주와, 아름다운 통기타 노래 소리가 외로운 섬 울릉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즐겁게 했다.

마지막 순서로 장지하 가수의 '새벽기차' 열창 땀 관객들도 함께 노래를 부르며 내년 을 기약했다.

이날 대전에서 온 최경숙 씨는 "매년 찾아오지만 올해는 기억에 남는 좋은 추억 하나를 만들고 가는 즐거운 여행이 됐다."라며 매우 기뻐했다.

한편, 정석목 포항시민간스포츠문화재단 회장은 "지난 2018년 기계면 문성리 새마을 발상지 마을을 시작으로 매년 경북도내 '찾아가는 희망음악회'를 열고 있다"며 "처음 울릉도에서 열린 음악회의 반응이 너무 좋아 내년에도 울릉도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동진 기자 cc24862@hanmail.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의 생생한 NEWS를 만나다
전국매일신문

HOME > 전국 > 서울

서초구, 악기 기증받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전달

윤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6.10 09:45

| 서초음악꿈나무 악기지원 사업 추진...연말 연주회 개최 예정



(서초구는 구민들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악기를 기증받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무상으로 전달하는 서초음악꿈나무 악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초구청 전경.)

(앞으로 서초지역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은 악기가 없어도 다양한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악기를 기증받아 수리한 후(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전달하고 교육까지 지원하는 '서초음악꿈나무 악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악기지원 사업은(악기가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문화예술 향유가 어려운 관내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악기 배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부터 서초문화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의 경우 55점의 악기를 기증받아 지역 내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전달했다.

올해는 악기 나눔에 이어 악기를 처음 접하는 청소년들에게 음악교육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8월부터 11월까지 서초교향악단 소속 연주자에게 직접 악기교육(기초/초급반)을 받고 연말에는 서초음악꿈나무 연주회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그간 연습한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기증받은 악기는 반포대로 주변 서초음악문화지구 내 악기 관련시설에서 수리·정비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계 소비위축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악기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서리풀악끼거리 홈페이지(<http://seoripulac.or.kr/main>)에서 온라인 접수 및 전화(02-3474-2911)로 신청할 수 있다. 악기 기증자에게는 '기증 감사증'을 전달할 예정이다.

조은희 구청장은(“집 안에 잠자고 있는 악기를 기증을 통해 악기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전달함으로 코로나19 속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증에 많은 구민 및 예술인들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신우기자



HOME > 전국 > 경기남북부

롯데홈쇼핑, 8년간 (지역아동 위해 친환경 문화· 학습 공간 제공)

ⓒ 고상규 기자 | Ⓞ 승인 2021.06.10 08:38

- 친환경 '작은도서관' 전국적으로 70곳 구축 운영
-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청소년 비대면 학습지원하는 온라인 전자도서관 기획하 기도

* 대기업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 *

ⓒ롯데홈쇼핑

[수도권=뉴스프리존]고상규 기자=롯데홈쇼핑은 지난 2013년부터 (문화 소외 지역 아동을) 위해 친환경 학습공간 '작은도서관'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1호점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전국에 70호점을 완공한데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로 '작은도서관'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의 비대면 학습 지원)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 전자도서관 운영도 기획했다.

롯데홈쇼핑은 9일 서울 강동구에 '배움터지역아동센터', 경기 여주시에는 '여주지역아동센터' 등 2곳에 비대면 학습 지원에 중점한 온라인 도서관을 잇따라 개관했다. 이어 지역 아동들에게는 온라인 전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무료계정을 발급하고, 태블릿PC도 함께 제공했다.

이용은 롯데홈쇼핑 모바일앱과 인터넷쇼핑몰 '롯데아이몰'에서 가능하며, 문학, 어린이, 인문, 에세이 등 총 2500여 종 8000여 권의 전자도서들을 상시 열람하고 대여할 수 있다.

또, 도서 예약, 희망도서 신청, 독후감 등 다양한 기능들도 활용할 수 있다. 롯데홈쇼핑은 매월 지속적으로 신간 도서들을 제공할 예정이며, 언택트 문화 확산에 맞춰 온라인 도서관 개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성빈 마케팅본부장은 ("당사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작은도서관을 통해 지역 아동들을 위한 학습공간을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학습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문화사각 지대에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나눔과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난해부터 다양한 언택트 상생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감염 예방이 시급한 취약계층에 '생활용품 키트'를, 원격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는 '학습지원꾸러미'를 제공했다.

마스크 기부 캠페인을 통해서도 모아진 1만개의 마스크를 취약 아동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영등포구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매월 반찬을 정기적으로 만들어 비대면으로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상규 기자

예술꽃 씨앗학교 기획사업



• **공모대상** 문화소외지역 4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구도심 포함)
사업 담당교사 잔여임기 2년 이상

• **모집기간** 2021. 6. 9.(수) ~ 7. 5.(월)

• **지원방법** 공모신청서를 작성 후 공문 접수
수신처: 행안부 유통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지원기간** 2021. 7. ~ 2021. 12. (기획사업)
성과 평가에 따라 최대 4년 집중 지원

• **지원내용** 사업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공동 개발
전교생 및 전교원 대상 연중 문화예술
교육 활동 지원
공동연수 및 기획 자문(컨설팅) 제공

• **문의** 사업담당자
(02-6209-1373, 1374, 1371)

1 기획사업에서는 지원형태 두 가지 중 선택 가능!

기존 모델을 보완한 '학교 주도형', 새로운 사업 운영 모델을 적용한 '학교-예술단체 협력형' 중 선택하여 공모 가능합니다.

2 상반기 신규 공모 진행

예년보다 공모 시기를 앞당겨 선정하며 '학교 주도형'은 하반기 예비과정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 개발기간을 확보하여 2022년 정규 사업계획을 구체화 시키고자 합니다.

3 예술단체와 협업을 통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학교-예술단체 협력형' 지원 시 예술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시범운영합니다.

4 학교 공간 활용도 가능!

참여학교는 공간에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예술꽃 씨앗학교' 기획사업 공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이규석, 이하 교육진흥원)은 6월 9일~7월 5일 '예술꽃 씨앗학교'를 이끌어갈 신규학교 공모를 시작한다.

'예술꽃 씨앗학교'는 농산어촌, 도서벽지 등 문화예술 혜택이 적은 지역의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전교생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8년 10개 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44개 학교를 지원했으며, 2021년 49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13여 년간 축적된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의 주요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해 두 가지 유형으로 준비했다. △기존 사업운영 모델을 보완한 '학교주도형' △새로운 사업운영 모델을 적용하는 '학교-예술단체 협력형'으로 적합한 모델을 선택해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예년보다 공모 시기를 앞당겨 2022년 정규 사업계획을 구체화 시키고자 한다. '학교주도형'은 올해 하반기에 예비과정을 진행해 선정학교의 전교직원에게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프로그램 개발 기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학교-예술단체 협력형'은 문화소외지역 특성상 예술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설계한 기획사업이다. 학교 선정 이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예술단체를 공모해 학교와 예술단체 간 협력형 사업을 시도한다.

공모에 선정된 운영학교와 예술단체는 올해 12월 말까지 학교 및 참여자 특성, 지역 환경 분석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운영('학교-예술단체 협력형' 해당)을 실행하게 된다. 2022년부터 정규사업으로 전환해 최대 4년 간 장기 집중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 설명회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신성아 기자 (mystery37@hanmail.net)

이 기사 주소: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10/2021061000012.html>



Copyright © Newdaily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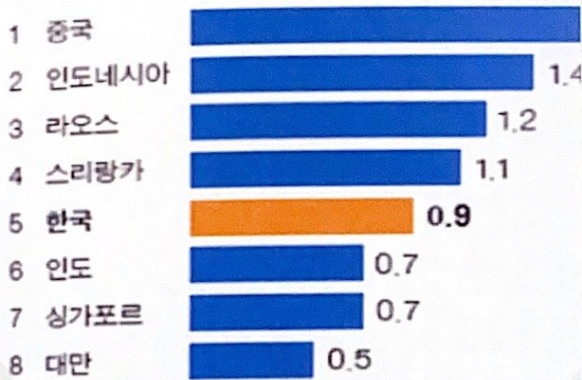
* 소득 양극화 현상 (빈부격차)의 원인과

- 다양한 현대 사회 문제들 중 주목받고 있는 경제적 자산과 소득의 불배 문제가 원천적으로 양극화 현상을 가리킨다.
-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이 저하되기도 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킨다.

국가별 빈부격차 순위와 비교

韓, 아시아 28개국 중에선 다섯째로 빈부격차 빠르게 확대

※ 1990-2010년 지니계수를 0~100으로 환산해 연평균 상승률 산출(상승률 높을수록 불평등 빠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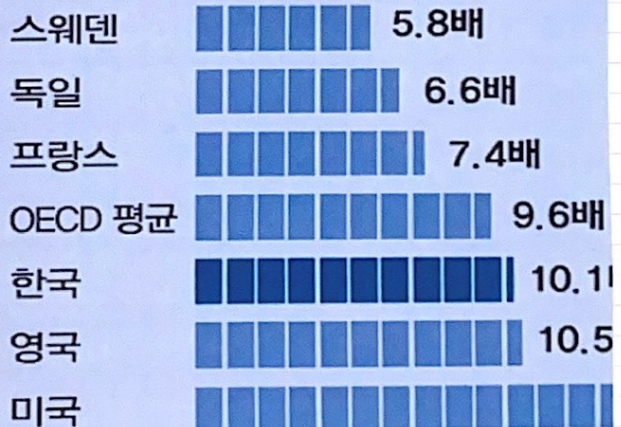


자료: 아시아개발은행(ADB)

< 빈부격차 확대 순위 >

< 빈부격차 가계소득 하위 대비 상위소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의 빈부 격차



가계소득 상위 10% 평균은 하위 10% 평균 대비 배수

자료: OECD(2012)

• 소득 양극화의 여러 원인
(소득 격차)

1) 세계화, 중국의 부상, IT 기술 가속화 등 환경 변화

㉠ 세계화가, 중국의 부상, IT 기술 가속화 등 환경 변화

㉡ 1980년대 이후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선진 격차(양극화) 정도 심화.

㉢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 간 격차가 발생하는 동시에 일부 내의 격차가 가속.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부 기업들은 보다 많은 매출 증대와 이익을 올리는 반면, 대다수의 기업들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는 양상

㉤ 개인 차원에서 세계화의 흐름에 유연한 민첩하게 대응하여 지식·기술 등 지적 능력이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에 큰 차이가 발생.

2) 1980년대 이후의 제도적 변화: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 구조조정

㉠ 1980년대 이후 일부 대기업과 여타 기업 간의 생존 여량 향상을 위한 노력이 양극화 되면서 소득 양극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

㉡ 제도 높은 구조 조정을 통하여 재생한 대기업은 차질 개선을 통하여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

㉢ 기업 전체의 대기업에서 중대형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이후 증가 추세.

㉣ 대기업은 매출액 영업 이익률에서 중소기업을 상회하며 이런 이후 격차가 더욱 확대. 기업간 실적 격차는 소속 임직원들이 임금 격차 형태로 연결.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기피가 심화되며, 중소 기업의 영위 저하로 연결됨

3) 경제 선순환 구조의 약화

「수출 증대 → 투자·고용 증대 →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1980년대 이후 약화.

수출이 수출·성비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IT 산업 위주로 재편되면서, 수출 증가가 국내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효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4) 빈곤의 세습현상

낮은 성취 동기로 인한 게으름, 과도한 소비, 사회 부적응 등 개인적 결함이나 부양 의무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 비자발적 개인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생생한 빈곤 현상 인하여 교육의 기회가 줄어들고 그로 인하여 취업 기회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빈곤의 세습현상이 있음.

5) 부의 세습현상

상속받은 재산을 이용하여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여 더 많은 소득을 더 많은 소득을 연계하는 부의 세습현상으로 인하여 세대를 지나면서 부처가 더 많아지게 되면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함.

• 소득 양극화 (소득 격차)의 해결 방안

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등대우의 실현

현재 2배에서 3배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우의 차이를 고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동일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 규정을 실현한다.

② 소득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한다. (누진세 강화)

부자에게서도 세금을 더 걷고 가난한 자에게서는 조금 (차등하여) 걷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복익의 빈익빈 현상이 일어난다.

즉 부자인 사람은 점점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게 되고, 그러므로 누진세를 강화시켜야 한다 생각한다.

법률로 제한을 둔다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많이 가진 자들에 한해서 거센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공산국의 국가나 소리를 높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제한과 규제가 어느정도는 강하게 필요할 것 같다.

부의 세습화로 인해 자식들의 교육의 질 뿐만 아니라

문화적 향상도 크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 우려가 많은 맞당돌인 현실이다.

당장의 의, 식, 주 해결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공면이라던가

문화체면을 자식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보다 더 나은 삶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과 달리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게 된다...

"자신의 족적과 동시에, 타당한 현실의 족적도 이루어진다. 한쪽에서 그가 족적되면, 그만한 다른 반대쪽에서는 정신적 실패함을 포함하는 반면 족적이 진행되고 하는 것이다. "

→ 칼 마르크스 저술 중 ...

인쇄하기



HOME > 전국 > 충북

한국교통대, 음악학과 2021 지역상생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 김상민 기자 | ☎ 승인 2021.06.07 1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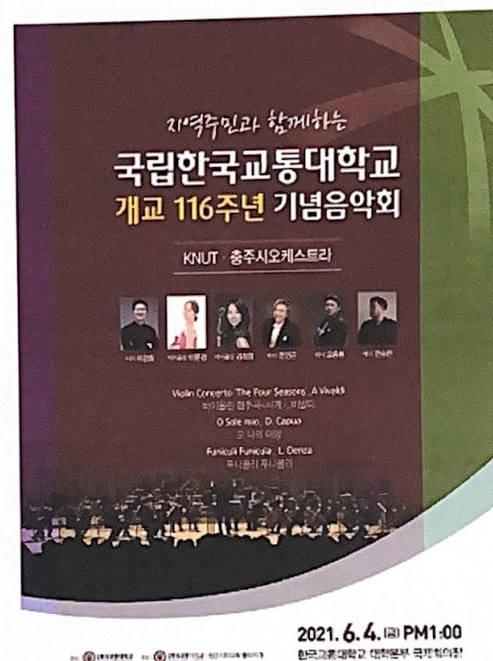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한국교통대학교(총장 박준훈)는 음악학과 주관으로 '지역상생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는 모두 3회를 기획해 지난달 21일엔 충주중원문화재단과 협업, 유튜브 실시간 음악회를 개최해 지역의 주민들이 안방에서 음악회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28일엔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지난 4일에는 한국교통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한국교통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및 강사들의 클래식과 재즈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인문사회대학장 이강희 교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해 침체되어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대중화에 돌파구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음악회는 한국교통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코로나 극복 희망 프로젝트



음악회 팸플릿(사진=한국교통대)

트'의 일환으로 지역상생을 위해 진행됐다.

김상민 기자 ksm3046@hanmail.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러나 19로 인해 공연계가 마비가 된 지근 ..
그러하여 문화예술인들이 설 곳이 현저히 줄었다.
그런 문화예술인들에게도 , 문화 공연을 볼 수 못하는
지역 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형식의
공연이 도없이 되는 사례가 더욱 많아진 것 같다.

-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무모함을 "수제"로 나누기 시작했다...

휴게

그럼 어때든 사담 초등학생이 너무 부러워서 한잔을 바라봤다

초등학생 같았다.

굉장히 근엄러운 스쿨버스에서 친구와 같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

예뻐서 엄마가 한참 웃으며 그 아이를 반겨주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 걸로 보이는 굉장히 시싸 보이는 체크 무늬 옷도 멋있었다

그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고급야구트 안으로 들어갔다

그 짧은 순간, 체크 보기도 안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난 가슴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아이가 부러웠다

내 평생의 소중한 아들인 어때든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아이가 부러웠다

그런 당시에 그 아이가 미웠다.

내가 가질 수 없었던 것을 너무나 쉽게 아니 너무나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그 아이가 미웠다.

그 순간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쓰러지 고했다

- Nate 커뮤니티 게시물 중 ... -

* 수입에 따른 교육 격차 기사 * ... *

서울 고교생 2명 가구 사교육비 月 101만원

지난해 서울지역 일반 고등학생의 학원비와 과외비 등 사교육비가 월평균 50만 5000원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초·중·고교생 10명 중 8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다. 전체 사교육비는 우리나라 예산의 10분의 1에 육박하는 20조원에 이른다.

통계청은 22일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같은 내용의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표준오차 ±1.5%)'를 발표했다.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年 20조원... 국가예산 10% 육박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자녀 사교육비로 지출한 액수는 20조 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생 10조 2000억 원, 중학생 5조 6000억 원, 고등학생 4조 2000억 원이다.

전국 초·중·고교생의 77%는 사교육을 받고 있고, 한 명당 월평균 사교육비로 28만 8000원을 지출했다.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사교육비는 월평균 22만 2000원이다. 학년별로는, 사교육을 받는 일반계 고등학생 한 명이 월평균 38만 8000원을 썼다. 중학생은 31만 4000원, 초등학생은 25만 6000원이었다. 특히 서울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한 명당 월평균 50만 47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

● 서울평균 35만원 읍면의 2배

서울 지역 초·중·고교생 전체로는 사교육비로 35만 2300원을 지출했다. 반면 읍·면지역 학생들은 18만 2200원을 써 2배 차이가 났다.

전국으로 보면 고교생 2.6%는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했다. 사교육을 받는 초·중·고등학생들은 영어 과목에 가장 많은 지출을 했다. 한 명당 월평균 12만 2000원이다. 수학은 9만 7200원, 국어는 5만 5900원이었다.

● 부모 학력 높을수록 지출 많아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월소득 7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사교육을 받는 자녀 한 명에게 월평균 50만 500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한 반면,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는 14만 3600원을 써 3.5배 차이가 났다.

게다가 자녀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 규모도 많아 '부름 통한 학력 대물림' 현상도 확인됐다. 초·중·고등학생 상위 10% 이내는 사교육을 받으면서 월평균 33만 5900원을 쓴 반면 하위 20% 이내는 23만 4300원을 지출해 1.43배 격차를 보였다.

유이 기사를 모든 학생들의 라이더가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시간외의 차이도 양력 격차의 폭리는 서서히
줄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전국 이것은 양력 격차가 40의 사회성, 경제적 능력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도농 학업성취도 격차 커, 부모 사회경제적 수준 때문

도시와 농촌지역 학생들 사이의 학업성취도가 큰 차이가 있으며 이는 지역이나 학교간 특성보다는 **학생의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의 10%인 126개 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분석한 결과 원점수로 언어영역은 서울과 광역시, 중소도시가 120점 만점에 74에서 77점대인데 비해 읍,면지역은 54점으로 20점 이상의 차이가 났다.

특히 외국어 영역은 도시지역이 80점 만점에 46에서 49점대인데 비해 읍,면지역은 31점으로 큰 차이가 났으며 수리는 61점 만점에 도시지역이 29점에서 33점인데 비해 농촌지역은 18점대였다.

교육개발원은 학업성취도 차이가 학교간 차이보다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나 부모-자녀간 상호작용 등 학생개별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들의 교육포부 수준이나 수준별 분반수업 여부, 교사의 성취압력, 과외 등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활동이나 컴퓨터 사용이 증가할수록 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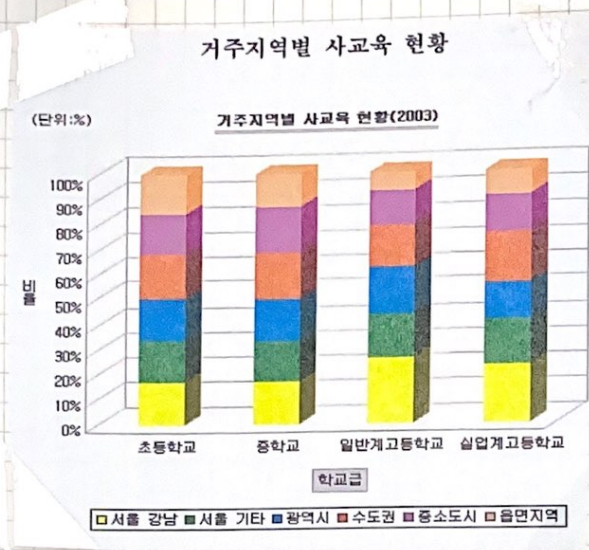
라이더 양력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언어 영역 5.218점, 수리 영역 1.591점,

외국어 영역 2.483점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시간외를 받은 것은 대항 진학률에서 나온 차이를 나타낸다

즉 사회 양력화에 의한 교육 양력화가 실현되는 것이다.



거주 지역에 따른 학교별 사교육이, 다른 표준 강남지역, 그리고 읍면지역에 따른 사교육 현상이 차이가 많은 것을 현상에 알맞게 있게 해준다. 초·중학교에서는 현상 차이가 없지만 대학 입시를 위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현상, 차이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비록 알 수 있게 해준다

< 교육 양극화의 해결 방법 >

1.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 입시 제도의 개선

공교육에 대한 개선만으로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교육의 질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대학 진학을 위해 학생간의 경쟁이 있는 한, 경쟁에 앞서기 위해 앞 다투듯 사교육에 의존하려는 양상이 여전히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공교육의 정상화와 더불어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 사교육이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하나의 양안은 대학 입학을 어려워도 졸업은 쉬운 현재의 상황을 바꾸어 입학은 보다 용이하게 하는 대신, 졸업을 어렵하게 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또 대학 입시 제도를 설계할 때 고2단계까지의 역량 성취 수준보다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다양도로 평가하는 것에 중점이 두어질 필요가 있다.

2. 교육 복지 향상 필요

적어도 가정 환경으로 인해 학습에 대한 권리가
라질 때는 상황이 상생해서는 안된다.
대중 전자에 대한 처리의 대책을 향상시키고
대중적인 교육 후 취업한 시점부터 장기에 걸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하다.

3. 교육 내용이 질 향상과 교육 내용의 개선이 요구

장년 교육군의 학생들에 비해 두드러지는 역량을

해위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누구나 장년 교육군이

교육의 길에서 우리나라 최고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누구나 장년 교육군에 장년 교육군에서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에 비해 가는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개발하여야 한다.

* 사회 복지 정책의 방향성

소득 재분배는 사회 보장이 기본적인 중요한 목적이다.
소득 재분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수직적 소득 재분배나 보편적 분배를 실현하는
동일 계층 간의 수평적 재분배를 통해 이루어진다. 도도록 여유롭고 복유한
고소득층의 세액은 많이 거둬들이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해서
이득의 현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수직적 소득 재분배 일 것이다.
그리고 수평적 재분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만큼
분할을 위한 세액이 체계에 큰 부담이 가지 않게 하며 수세로
분배과정에서 분배로 탈세하는 이들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평적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부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상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사회 보험, 공공 주택 등은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특히 소득 분배 정책이나 복잡스럽게 공란을 뒤편 국민 등은
도대체 안 될 수 있었다.

* 내가 생각하는 인식 갈등 해소 방법 *

1. 인식 격차에 따른 교육질 격 차이 해소

- 양선 자료 조사와 주관적인 의견을 종합하여 봤을때 우리나라 현 교육은 크게 서양·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큰 것 같다.

흔히 말하는 갭은 음향권과 지방의 교육의 격차 차이가 그래프와 눈물을 통해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최고의 교육 수준이라고 알고 있지만, 누구나 그만큼의 교육을 받을 수는 없는 현실이다.

교육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일관된 교육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

경제성을 떠나 해도 교육의 평준화를 이루길 위해

공교육의 질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견도가 높은 사교육보다 지금 당장의 공교육 질 개선이

눈에 보이는 효과는 미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교육이 대항 입시는 물론 기업의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최소한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다양한 학습 분야 개발

- 우리나라의 교육은 국, 영, 수 위주의 교육으로 크게 치우쳐 있다. 이것은 초등 교육부터 학습을 대항 교육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라인이 아니다.

글쓰기는 교육을 전공한 유대 졸업자이다. 나는 스스로 음악에 공복하였다는 점을 자랑스러워 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난 뒤 현실이라는 큰 벽에 부딪혔다.

인간은 인문학이나 예술 분야로 교육의 시장을 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국, 영, 수 만 잘하면 되는 임시 제도나 현실의 압박에 학생들은 지쳐가고 있다.

시험 기각조차 예체능 수업은 시험에 도움도 되지 않는 과목으로 취급을 받고, 임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하였다.

나라에서, 현 임시 상태에서 문화 (예체능)을 인정할

하지 않는다면 나라에서 직업군을 선정해주는 것이

막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문화, 이대로 놔두지 않고 학습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3. 시공중 자녀의 교육의 질 향상 상황

경로 1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공교육보다

사교육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어떤 부모가 자녀들의 공부를 좀 더 나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끔 원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생계를 위해

하루를 버텨나가는 중에 사교육 (학원, 개인 레슨) 은

값도 각지 못하는 슬픈 현실에 ~~만~~ 마주하게 되절하고 만다.

'저천에서 웅난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던 시대와는 다르게

현 시대는 대부분 이 말이 옛날 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저 많은 공교육의 강제성이나 프로그램이

강화되었을 시대의 말이 된 것이다.

사교육과의 편차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과 개선이 필요하다.

대중 제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튜터링 프로그램 도입과

비슷한 교육의 장을 열게 된다면 조금이나마

개선이 도끼 앓을까라는 생각을 해볼다.

4. 양기 도서관 제도 도입

예수꽃 시앗 학교, 서초구 음악 꽃나무 양기 지원 사업,
송파구 양기 도서관 제도 운영 등에 대한 자유 기사를
중심으로 해보았다.

문화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기금 사업과 양기 도서관 제도를
제사라한 난 뒤 많은 생각을 하게 된 대목이다.

결과 2.에 썼던 것처럼 국, 영, 수, 이공계 계열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에 갇히거나 바싹이라 생각한다.

수도권 학생들에게 비하여 지방 학생들 (문화소외계층)은
교과 수업의 진도는 물론이거니와 문화 관련 수업의 편차가
엄청나게 큰 편이다.

장점적인 표현으로 머리 살기 힘들어 학생도 못가는데
예제등 수업은 끝도 가지 못하더라는 말이다.

제도 시장에 따른 방대한 예산과 시행 창안이 살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으로 재능이 있어도 경제적 사정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시도도 해보지 못하는 딱딱한 현실에
관심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라 생각해볼다.

① 기차길 구하는 창작 노트를 바치며 ...

처음 기차를 구하는 창작 노트를 접하고 주제 선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다. 어느 순간부터 각자 살선 비판과 평화가 싹하듯, 센터 갈등과 내가 직접 경험하고 지켜보았던 신부 갈등, 문화적 신부 갈등의 주제에서 고민을 해왔다.

나는 강원도 춘천 출신의 예술인이다. 춘천은 지리적 위치상 수도권 전철이 통이한 편이었다. 내가 임시 준비를 하면, 기차를 타고 수업을 받으러 온터 때와 다르게 이제는 지하철이 다니는 큰 도시가 되었다. 대학생이 된 후 문화산의 기억으로 교육 봉사하러 찾아가는 음악회를 다양한 공간으로 다니게 된 후부터 많은 생각과 심심함을 갖게 되었다.

더 산간 지역의 학생들은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의 의존도가 높을 것은 물론이고 문화 수업과 문화 체험의 기회가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뮤지컬, 연극, 음악회, 마술 전시회, 등등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었다.

교육의 수준도 편차가 너무 컸다. 공간물에만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였다. 드라바 스카이크레슬 속에 내용이 탄탄한 친구가 아니라 사실을 개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나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의 문화산의 계층을 위한 교육 제도를 중심으로

지금 글사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창작노트를 구성해보았다.

현재로서는 이 같은 생각들이 현실에 반영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선진적으로 교육의 편차를 줄이고 사라지는 희망들을 위해
어른들이 노력하여 제도를 도입하고 상황성을 제시한다면
곧 더 아이들은 신속하게는 물론이고 문해적 역차이~~차~~를
좁힐 수 있는 환경이 안지 않을거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최근 사성을 해보는 형식이라 사실 조금 어려웠다. 이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자료 수집을 해도 독재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만의 스타일로 작성하는 것이 최대한, 곧 더 친숙하게
내가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형식을 보여 줄 것이라 생각한다.

SNS와 인터넷 뉴스 기사가 친숙한 어린이인 것이다.

'어린이'라는 말은 어린이 + 어른의 합성어이다.

매년 어리지도 그렇고 많다고 표현하기 애매한 나이인 내가
내 자신을 표현하기 최적한의 용어인 것이다

어린이의 장점을 살려 요즘 학생들의 생각과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형태, 신속 활동의 미진한 소비 행위를 조사하기 좋은 방법으로
지금 글사아 수집을 해보았다.

'지구를 구하는 창작 노트'를 통해 내가 알고 싶었던,
마조하러 생각해보지 않았던 분식에 대해
생각할 수 있던 좋은 기회였다.